

투데이 칼럼

북한 고난의 행군 재개

**김** 권 10년 차를 맞은 김정 은 위원장이 고난의 행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북 제재에 코로나19 그리고 재해 등으로 이 구호가 다시 불거진 것이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외부 도읍 없이 주민들의 허리를 졸라맸다고 했다. 지난 4월 8일 평양에서 열린 세포 비서대회 폐막식장에서 그는 8차 당 대회 결정 관철이 순탄치 않을 것을 언급하며, 당 세포비서들의 활약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으며 오직 수십만 노동당원들, 특히는 수십만 우리 당 세포비서 동지들의 심장을 믿을 뿐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난의 행군'을 주문했다. 그는 "나는 우리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각급 당 조직들, 그리고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라고 했다. 고난의 행군은 북한이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내뿜던 구호다. 1990년대 말 김일성이 이끈 항일 빨치산 100일 행군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6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고난의 행군'을 다시 한 번 집면에 내걸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난의 행군' 정신 아래 '선군정치'를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강조하며 국가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 했다. 군인 건설자들을 투입해 경제 재건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국방력 제고에도 집중했다. 이때 북한은 안변청년발전소, 원산-금강산 철도 등 대형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최철단 산업 발전과 철, 섬유, 비료 생산 등 자력경쟁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북한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은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 지 해야만 했다. 경제난에 이어 자연 재해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기근을 경험해야 했다. 당시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노동자들이 집단 결근하는 사태가 자주 일어났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각지를 떠도는 사람들도 늘었다. 배급에만 의존해 살던 북한 주민

들에게 국가 배급 중단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였다. 숲한 나무뿌리도 캐 먹고, 풀도 뜯어 먹었다. 나뭇잎이라고 생긴 것은 다 뜯어먹었다. 겨울에는 그런 것도 없어서 감자 껍질을 말렸다가 가루로 우려서 먹었다. 1990년대 북한에는 꽃재비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북한 아이들을 뜻하는 말이다. 고난의 행군 10년 동안 48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사망했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 자유의 땅을 찾은 탈북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은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그들은 당시 밀수를 해서 강변이 가루를 바껴서 먹고 외화벌이 나무 판재를 해서 고난의 행군을 살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한 '고난의 행군'은 현재 북한이 직면한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대북제재,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중국과의 교역도 중단되면서 극심한 경제난 특히 식량난에 직면했다. 북한 주민들이 주식으로 찾는 옥수수 가격이 최근 급등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체감 불가도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북중 국경이 통제되면서 중국에서 들어와야 할 옥수수 및 가루 등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식량 가격은 작년 연말부터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주민들의 불만도 어떤 식으로든 표출될 수 있다. 북한은 8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자력경쟁을 통한 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세포비서 대회 폐막식에서 10가지 과업을 제시하면서 특히 사상교육을 강조했다. 사상 무장을 강화해 주민 통제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규모 기념사 진 출연으로 세포비서 대회 일정을 마무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난의 행군' 카드를 다시 꺼내 내 부 결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3대째 이어지고 있는 '고난의 행군'이 일반 북한 주민들의 민심까지 다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독자제언

SNS 틱톡(Tik Tok)가입 현금 지급 이벤트 범죵

틱톡(Tik Tok)은 15초에서 1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 제작 및 공유하는 중국기업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으로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틱톡 친구를 초대하면 현금을 줘 가입자를 늘릴 목적으로 지난 8월 초부터 1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원래는 만19세 이상의 신규 회원을 초대하면 가입자에게 최대 40만원을 주는 프로모션이었다. 그런데 현금을 주는 이벤트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강요하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현혹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신중 학교폭력이 우려되고 있어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으로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틱톡 가입 및 시청을 강요하여 학교 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틱톡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만 19세 이상자에 한하고 있어 가해학생의 폭행·협박에 못이겨 피해학생은 부모나 친척의 계정을 몰래 가입토록 하여 계정만 넘겨 받고 잠적하는 사기 피해와 함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학교 폭력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이 단연되지 않도록 가정에서의 부모, 학교에서의 교사와 청소년, 학교폭력 전담 경찰, 청소년 사회단체 등 전방위적인 관심으로 밝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가해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일중 무주경찰서 부남파출소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바이든 “카불 공항 테러, 대가 치르게 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최소 12명의 미군이 숨진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인근 폭탄 테러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 용서하지 않고 잊지 않겠다”라며 “끝까지 추적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카불 공항 인근에서 두 차례 폭탄 테러가 발생해 미군 12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으며 이슬람국가(IS)는 이를 자신들의 소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 사 실

### 완주 동상면 애향인 고 김진갑

완주 동상의 감식초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이곳 감식초는 당초 고 김진갑(1938-1997) 선생이 개발했다. 동상면은 해발 1,124m의 운장산 줄기에 자리 잡고 있는 산골이다. 전국 8대 오지중 하나로 꼽힐 정도였다. 대아리와 수만리 6개 마을 주변에는 많은 감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주민들은 꽃감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꽃감은 일손이 많이 들어가고 크기가 짝에 따라 폐기되는 감도 많았다. 김진갑 선생은 1987년부터 폐기되는 감의 활용 방안으로 감식초 생산을 시작했다. 옛날부터 주민들은 감을 찢서 루에 올려놓은 뒤 발효돼 떨어지는 새콤달콤한 물을 받았다. 그 물을 각종 질병에 민간요법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식초로도 사용했던 것에 착안한 것이다. 그는 일본에서 식초 생산 과정과 효능 등에 대해 자료를 구했다. 1989년 이 일대 마을은 농어촌 특산단지 지정 받았다. 동상고등공민학교 자리를 얻어 발효실과 작업실·검사실 등을 마련했다. 감 술을 남품 받아 2년간 숙성했다. 그 뒤 우편 판매를 통해 감식초를 전국에 공급했다. '완주 8품'으로 선정됐으며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형성하고 있다. 동상 감식초는 당분과 당분이 풍부하고 짙은 맛(타닌산)이 강하다. 씨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인 '고종시'라는 고유 품종만을 사용하고 있다. 피로 회복, 숙취 해소, 신진대사 촉진 등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2018년 동상 감식초는 처음으로 홍콩 수출 길에 올랐다. 김진갑 선생은 농촌운동가이자 상륙수 교육가였다. 그는 동상고등공민학교와 동상유체국을 설립했다. 평생 지역 발전을 고민했던 애향인(愛郷人)이었다. 한편 그의 자녀가 코로나 여파를 겪어 지난 4월 아버지를 그리는 시집을 출간해 눈길을 끌었다.

### 소멸되는 지방 활성화 방안

지방 활성화 방안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地方創生)'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을 창조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뜻이다. 일본 치바(千葉)현의 관문 키사라즈(木更津)시에서 기차를 타고 한 시간을 가면 역무원이 없는 호타(保田) 역에 도착한다. 인구가 아주 적은 시골로 이곳에는 126년 역사를 가진 호타(保田) 초등학교가 있었다. 학생 수가 감소해서 2014년에 문을 닫았다. 이 학교가 있는 교나카치(鉦幡町)는 인구 7천여 명의 작은 지자체이다. 자치단체는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모색했다. 주민들은 추억이 담긴 학교 건물을 최대한 살리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래서 2015년 호타 초등학교 문패를 달았다. 이름은 초등학교지만 내용은 도시민 교류 시설이다. 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층에는 라면집, 피자 가게, 커피 가게, 아이 놀이방, 2층에는 숙박시설, 목욕탕이 들어섰다. 호타 초등학교 주변의 석양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방문객들이 당일치기로 돌아오는 게 아까워서 교실을 숙박 시설로 개조했다. 일본 사람들은 목욕을 좋아하기 때문에 학교 건물 2층, 어디 서나 보이는 공간에 대중목욕탕을 만들었다. 학생들이 뛰어놀던 강당은 판매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250여 지역 농민들과 30개 업체가 제품을 출하하고 있다. 그 뒤 이곳의 연간 방문객은 60만 명에 이른다. 문을 연 뒤 보조금 없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곳의 건물 설계 공모에는 37개 팀이 참여했다. 최종적으로 와세다대, 호우세이대, 요코하마 국립대 등 5개 대학 연합팀이 설계를 맡았다. 공사비는 모두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했다. 시골의 폐교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호타초등학교는 지역의 재생 모델이 됐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